

增補改正版

北韓大事典



3291

社團法人
共產圈問題研究所

배치된 북송 교포(北送僑胞) 12 명이 고의적으로 유리 제품의 오작품(誤作品)을 내어 태업(怠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북송 교포 12 명이 하루 14 시간 내지 16 시간씩 계속되는 중노동(重勞動)에 지쳐 고의적으로 3 일 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발단(發端)이 되어 일어났다. 공장 당국은 그들이 결근(缺勤)한 날짜만큼의 식량 배급을 주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북송 교포들은 일부러 수많은 오작품을 내었다. 이 오작품은 병에 모래 구멍을 내거나 바늘 구멍 정도로 뚫어 놓는 정도여서 초기에는 반각(發覺)되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폭로되었다. 남포 유리 공장 사외 안전부에서는 북송 교포들을 검거(檢擧)하여 전원(全員) 노동 교양소(노동 교양소 참조) 또는 중노동만이 기다리고 있는 산간 오지(山間奧地) 임산 사업소로 송치(送致)하였다. [당위성] 북송 교포들은 이국 땅에서 고생은 하였으나, 북괴 학정하(虐政下)에서처럼 노동 조건이 나쁜 환경 속에 혹심(酷甚)한 중노동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눈으로 그 사회를 관찰하기 때문에 중노동에 혹사하면서도 그에 상당한 댓가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욱 심한 노동만을 강요하는 북한 현실의 고질(痼疾)을 알게 되자, 자연 반항(反抗)에 나서게 되며, 억제하면 할수록 반발은 극렬(極烈)한 형태로 진행하게 됐다. 남포 유리 공장 북송 교포 태업 사건은 북괴 학정 아래 노동 생활의 비참성(悲慘性)을 보여 준 것이며, 그에 대한 반상 운동을 보여 준 것이다.

남한 공략 3 개안(南韓攻略三個案) :
[개항] 북괴 정권이 정식으로 세워진 1948 년 9월 이후, 북괴 집단의 상층 사회(上層社會)에

는 극비리(極秘裡)에 나도는 세 가지 화제(話題)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남한 공략 3 개안이다. 당시 북괴 정권 내에서 거두적(巨頭的)인 역할을 하는 김 일성(金日成)의 주장과 박헌영(朴憲永)의 주장, 그리고 김 두봉(金斗奉)의 주장, 즉 세 가지 남한 적화 통일 방안(南韓赤化統一方案)이었던 것이다. [3 개안 골자] 제 1 안은 김 일성의 주장이다. 혁명 정세(革命情勢)를 고도로 양양시켜 놓고, 객관적 정세가 한반도 혁명에 유리하게 전개되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타격(打擊)의 기회를 만들어 군사적 방법으로 일거(一擧)에 남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한을 정치적 방안으로 북한과 동일한 인민 위원회 정권 형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제 2 안은 박헌영의 주장이다. 38 경계선의 군사적 분쟁지(紛爭地)를 점령하고, 한편 남한 당국과의 정치적 흥정의 길을 마련하면서 남한 지역의 자연 발생적 인민 봉기(自然發生的人民蜂起)에 불을 지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의 무력 간섭을 초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 안은 김 두봉의 주장이다. 김·박 양안(兩案)과는 다소 상향(注向)을 달리했다. 그는 먼저 무력 행사를 반대하고, 그 대신 평화적 방략으로 남한 사회의 반일 혁명(反日革命) 유가족 자제들에게 장학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을 주르사관 학교에 입학케 하여, 이들을 전방의 소대장으로 배치하게 한 다음 남한 군대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면, 동족 산간의 남북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취약점] ① 3 안이 있었으나, 김 일성안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공산 체제 하에서는 그 거두의 주장만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가 되었다. ② 더우기, 박

현영은 6.25 동란이 마친 뒤, 그가 제시한 '침공 시의 인민 봉기 가능성' 주장으로 말미암아 패전(敗戰)의 책임까지 뚝뚝 뒤집어쓰고 총살형의 억울함을 당하였다.

남한 출신자의 처리 기준(南韓出身者處理基準) : [내용] 북괴는 1953년, 남로당 계열(南勞黨系列)의 숙청을 계기(契機)로 남한 출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5.30 결정(5.30 결정 참조)에서 북괴는 남한 출신자는 무조건(無條件) 박헌영(朴憲永)·이승업(李承燾) 등의 추종자(追從者)로 보고, 감시·통제(監視統制)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막걸 본자, 즉 6.25 동란 전 남로당을 반대했거나, 남로당 저물금(巨物級) 숙청에서 위증(僞證)을 해서 북괴를 도운 자들은 아직도 일정한 대우를 베풀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인사의 숙청(拉北人士肅清) :

[남북 인사의 이름] 6.25 남침 후, 서울에 침입한 김일성 도당들은 당시 미처 미안가지 못한 정치인과 학자·고급 관리·문예인·종교인 등을 모조리 색출(索出)하여 그 일부를 총살(統殺)하고, 일부 인사들은 북으로 납치하여 갔다. <남북 인사 명록(拉北人士名錄) 참조> 이때, 납치된 수는 공식으로 집계된 것만 남자 78,377명, 여자 6,155명으로 도합 84,532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에서 북괴군에 끌려간 인사들 가운데에는 조소양(趙素昂)·오하영(吳夏英)·안재홍(安在鴻)·조완구(趙煥九)·김규식(金奎植)·윤기섭(尹珪燮)·송호성(宋虎聲)·원세훈(元世勳)·박전웅(朴建雄)·김효석(金孝錫)·김약수(金若水)·이문인(李文源)·노일환(盧鎭煥)·최린(崔麟)·정인보(鄭寅普)·이광수(李光洙)·김동환(金東煥)·김억(金億) 등 1백여 명의 저명 인사들도 있었다. 노일환·김약수 등은 국외 무락치사건의 '공로'가 있음에도 아무런 보장(保障)을 받지 못했다. 북괴는 이들 남북 인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서전(自傳)을 쓰라느니 세뇌교육(洗腦教育)을 받으라느니 하며 괴롭혔다. 평양에서 중환(重患)으로 누웠다가 후퇴 시 북괴군에 피살(被殺)되었고, 역사학계의 권위자인 정인보는 후퇴 길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임정(臨政) 요인인 김규식은 1950년 11월 말, 만포 부근에서 병사하였고, 이 밖에 많은 남북 인사, 특히 저명한 종교인(宗敎人)들은 대부분 비참한 종말(終末)을 고했다. 남로당 계를 숙청한 뒤, 김일성 일당은 남북 인사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보려고, 그들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참조>에 망라(網羅)시켜 놓고, 이른바 '조국 전선'의 이름으로 대남 방송 선전에 강제 동원시켰다. 물론 원고는 노동당에서 작성하여 이들에게 강제로 낭독(朗



6.25 때, 북괴는 여국 인사들을 이렇게 남북 해 갔다(도장에서 나오자는 현지에서 학살하였음).

讀)케 하였으나, 조소앙 같은 사람은 끝내 북비권(黜秘權)으로 이에 맞서기도 했다. [남북인사에 대한 세뇌 교육] 1954 년에 이르자, 북괴는 남북 인사들 중 이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선발(選拔)하여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목적으로 인민 경제 대학(人民經濟大學)〈인민 경제 대학 참조〉에 특설반(特設班)을 설치하고 입교시켰다. 이 때, 입교한 사람들은 엄항섭·김효석·김학수 등이었다. 한편, 이러한 상설 기관(常設機關)이 수용하지 않은 남북 인사들은 모두 다 집단 수용시켜, 별도로 세뇌 교육을 시켰다. 이들을 처음에는 '조국 전선'에 망라시켜 이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실패치 않아 북괴는 새로 남북 인사만의 정치적 조직체인 '재북 평화 통일 추진 협의회(1956년 7월)'〈재북 평화 통일 추진 협의회 참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조직체(組織體)의 이름으로 호수문(呼訴文)을 발표케 하는가 하면, 남북 인사들에게 남한에 있는 가족한테 보낼 편지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물론 이것은 북괴가 대남 공작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 편지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朝總聯)〈조총련 참조〉을 통하여 남한에 사는 연고자(緣故者)들에게 발송되었다. [남북 인사 숙청] 최창익 등 연안파(延安派)를 숙청한 후, 북괴는 이 연안파의 영향을 받은 조소앙·엄항섭 등을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고, 1958년 후반기에 이르러 드디어 숙청의 미수(美手)를 펼쳤다. 그리하여 김일성 일당은 이들에게 북경 증국에서 남의사(藍衣社)에 관련,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학살(虐殺)했다는 죄목을 날조하였다. 조소앙의 경우, 중국에 있을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을 학살(虐殺)한 민족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

온 후 관대히 보아 주었더니, 노동당을 지지 하기는 커녕 불명 불만만 늘어 놓는다고 했고, 엄항섭의 경우는 동료들을 규합(糾合)하여 종파(宗派)를 꾸미고 남북 간의 중립주의자 들을 포섭, 반정부 음모 계획을 꾸민다고 조작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을 죄로 구금하고, 수개월에 걸치는 모진 고문(拷問)의 못이겨 엄항섭은 마침내 자백서(自白書)를 썼는데, 윤기섭·조소앙·송호성·원세춘 등을 관련시켜 구속(拘束)케 하였다. 북괴는 그 뒤, 엄항섭이 자살하려 한 것은 음모 사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조소앙도 대동강에 투신 자살하였다고 의곡 보도(歪曲報道)하였다. [취약점] ① 남북 인사들을 이용할 때까지 이용해 놓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되자, 갖가지 죄명(罪名)을 뒤집어씌워 숙청해 버린 것은 김일성 일당의 잔인(殘忍)한 비인도성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② 조소앙·엄항섭 등에 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남북 인사들은 구금되었거나 숙청되었는데, 예를 들어 뇌 치료(腦治療) 제형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알려진 김시창 박사 같은 사람은 끝내 노동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고집했다고 해서, 마침내 숙청하여 평북도의 농장 노동자로 쫓아 버렸다.

'내각 결정 149호': [내용] '내각(內閣 = 현재 정무원) 결정 149'란 붉은 도시화 계획에 의한 불순 분자(不純分子) 추방을 목적으로, 적대 계층(적대 계층 참조)인 반혁명 요소(反革命要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문화(明文化)된 것처럼, 주요 도시와 군사 요충지(軍事要衝地) 부근에서 적대 계층과 동요 계층(불순 요소를 지닌 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強制移住)시키기 위한 대책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양시 약 5천 세대, 대. 황해남도 휴전선 연(連) 약 1천 5백 세대, 평안지구 약 1천 세대, 함남 9천여 세대가 추방된 주계한(制限)을 의미하는 것은 평양시와 개성시에 30일에서 20일로, 각 주요 서면 거주 또는 활동할 제(統制)를 당했다. 구분은 공민증(公民證) 드장을 찍고, 해당 기록(登錄)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149호'나 방문객(訪問客)을 역사의 안전부(사회) 하도록 통제를 받 결정 149호'는 북한 살(人間抹殺) 행위와 (迫害)와 천대(賤待)의 하나이다. 소 사람들은 생존(生存)하고 노골적인 탄압 겪는다. 자연 이 사 한 반항심(反抗心) 항 투쟁의 앞장을 상'자들은 철창(鐵) 탄압이 극심한 감옥 은 상태에서 비참한

내각의 권한(內閣의 권한)

내각의 운영(內閣의 운영)

중앙 집권적인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고 하면서 계획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 계획화를 공산당과 정권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중요 문제로 제기한다. [회의집] 북부 공산 목적 집단(北滿共產黨集團)이 계획을 계획화 한다는 것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 충족(充足)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노선(경제 노선)과 경제 정책(경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생산 과정의 순조로 운 진행보다도 목표에로의 강압적(強迫的)인 투항을 위한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각 부분 간의 상호 관계(相互關係)를 파악(掌握)한 계획 조율(調整)이나 생산 수단의 분배, 각 생산 분야 간의 균형(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또 목표로 복귀시키는 강제성이 발동(發動)되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균형을 파괴한다. 실제로, 북부 공산 목적 치하에서 소위 인민 경제 7개년 계획은 그 계획이 작성 초기로부터 전쟁 준비를 위한 군수 생산 위주(軍需生産爲主)로 되어 있으나, 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수 생산을 더욱 확대할 목표가 제기되어 경제 계획이 그의 복귀(復歸)되도록 고쳐 써서 경제 분야의 균형이 파괴되어 7년만에 도달해야 할 각 부문 지표 별 생산량(指標別生産量)을 10년이 걸려서도 달성하지 못하는 형편에 떨어졌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계획화는 공산 목적 정권에 의하여 부단(不斷)히 의 식적으로 증대되는 목적 달성(目的達成)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층은 그것을 타치지 않을 수 없다.

인민 경제 대학 (人民經濟大學) : [내용] 1954년에 건 북부 내각 간부 학교(內閣幹部學校)를 개편 확장하여 설립하였다. 1965년

이전에는 주로 정권 기관(政權機關) 고·중급 간부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1년간(一年班)·2년간·3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정교육을 실시했으며, 간혹 특수 인사(남치 인사)를 교육하는 특수반(特殊班)도 있었다. 그러다가 1965년 이후, 내용을 재편하여 4년제 행정 간부 양성 학부로서 계획 경제학과(計劃經濟學科)·부기 및 계산학과·재정학과(財政學科)·금융학과(金融學科)·노동경제학과(勞務經濟學科)·행정·경제학과 등을 구분 설정하였다. 매년 평균 1천 5백 명이 입학하며, 조직적인 기숙사(宿舍) 생활을 시킨다. [회의집] 북부의 인민 경제 대학은 정권 기관 및 국공 행정 기구의 간부들 육성(養成)하는 정규적인 대학이다. 그러나, 이 대학에는 고등 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과정을 수료(修了)하지 못한 행정 간부들이 입학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연령(年齡)·지식 정도(知識程度)의 차이는 매우 심한 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의 지장을 주며, 미교육자(被教育者)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장을 준다. 실제로,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미교육자는 일부 수준이 낮은 미교육자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 시간에 의무적(義務的)으로 참가하여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인민 경제 대학에서의 교육은 수준이 낮은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민 경제 3개년 계획 (人民經濟三箇年計劃) : [내용]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계획은 1953년 8월에 소집(召集)된 북부 노동당 중앙 위원회 6차 전신 회의에서 채택(採擇)하였다. 기간은 1953년 7월 27일부터 195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전신 회의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과 농업을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 계획 기간의 구체적인 경제 복구 건설을 3개



전후 복구 공사의

복한다. 제1 단계는 전면적 중공업 복 단계는 공업에서 저 달성하기 위한 실력의 기초 축성을 위 다. 중공업을 전시키며, 주민의 하여 절실히 필요 중공업 중에서도 장래 공업화 공을 내세웠다. 계획은 단순히 복(復舊) 중 중공업을 (軍需生産)을 위 계획이었으며, 의한 처와 통일

[실화] 일본 기자들이 북한을 방문(訪問)했던 1969 년도의 일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제대로 시찰 코오스에 의해 합우 조양 협동 농장으로 기자들을 안내하였다. 독신자 합숙소(獨身者合宿所)에 들렀는데, 가구 중에 재봉틀이 있었다. 기자들이 이상하게 여겨, "독신자 합숙소에 재봉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편의 위원장은 당황(唐惶)하면서, "장가갈 때 가지고 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기자들은 다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재봉틀이냐?"고 되물어 크지 망신을 준 일이 있었다. 사실 상 이 재봉틀은 '가구 운반조(家具運搬組)'라는 이 농장 특유의 조직에 의해 외국 손님이 올 때면 으레 가구를 운반(당 간부 집 것들)하여 전시한 것이었다. [취약점] ① 일반 가정의 생활 수준이 재봉틀을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점, ② 오작품(불합작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현금 배를 노렸다는 야비(野卑)한 수법 등을 들 수 있다.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내용] 북괴가 위장 평화 공세(偽裝平和攻勢)를 위하여 1956 년 7월 남북 인사(南北人士)들만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직의 표면 상(表面) 주장은 다음과 같다. 조국을 평화적(平和的)으로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세(外勢)의 간섭(干渉)을 반대하면서 남북 간의 협회(協議)와 교류(交流)를 촉진(促進)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괴는 남북 인사들이 위장 전술(偽裝戰術)로가 아니라, 실질적(實質的)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志向)하게 되자, 남북 인사들을 무차별하게 대

량 숙청(大量肅清) <남북 인사의 숙청 참조>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는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단체로 전락(轉落)해 버렸던 것이다.

재산 공비(在山共匪) [개요] 6.25 동란 전 및 동란기에 이른바 계림라전에 참가한 재산 공비는, 크게 북한에서 침투(浸透)한 유격대(遊擊隊)와 남한 내외 좌익 세력(左翼勢力)들이 입산하여 편성한 유격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괴뢰 집단은 그들의 남침 야욕(南侵野慾)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남한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선동 지원하여 그들을 소위 혁명 세력으로 키우려 했으며, 공산당 불법화(共產黨不法化)가 되자, 그들의 집단을 지령하여 유격 기지 확보(遊擊基地確保)를 명하는 한편, 이들 재산 공비(在山共匪)를 지원하기 위하여 월북(越北)한 이남 출신으로 구성된 유격대를 남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유격대는 6.25 동란 중, 무고(無辜)한 민간인에게 재산 및 인명 피해(人命被害)를 가하며, 북괴군의 전면전(全面戰)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후방 교란(後方擾亂)에 그쳤으며, 동란 후 남로당계(南勞黨系)의 숙청으로 것줄이 끊겨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괴멸(隕滅)되고 말았다. [입산 공비] 남한에서 좌익 활동(左翼活動)을 하다가 입산한 공비를 시기적으로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제1기(1948년 11월 초~1949년 4월 말)=여순 반란 사건(蔚順叛亂事件)이 실패하자, 이 사건의 주도자인 김 지회(金智會)·홍순석(洪淳錫) 등 약 3백 50 명이 지리산(智異山)으로 도주함으로써 편성된 지리산·덕유산 일대의 공비와 대구 6연대 반란을 일으킨 반도(叛徒) 및 도항 과전

억제하
서이다.
아니라,
면 당이
한다고

재판소
(직할시)
(仲裁事
말아보
(沒機關)
계획(計
관련(關
해결할
역시 노
다.

재봉틀로
한다. 중
으로 보금
소전 제 등
양마표 중
로 250 원
재봉틀을
한데 현금
인 일이 있
오작품(誤
이 때 구
었다. 특
산(農生活)
를 사용도
리하게 재
는 것이다.

조선 중앙 은행 서울
 (置)하도록 되어 있
 는 북의 은행권은 제
 다. [취약점] ① 국
 당, 각 기관·사
 은행권(韓國銀行券)
 으로 큰 혼란을 초래
 이 영향이 주민들
 고려하지 않았다.
 과 혼용(混用)해
 은행권을 사용 금지
 것은 언어 도단(言
 단에 한하여 당분간
 아무리 합리화하려
 기 문서(詐欺文書)
 가 북한 은행권과
 의 유통 질서(流
 수탈을 저지 임의
 하였다.

등 법령 실시(占
):[개황] 북한 괴뢰
 도발하고, 그들이 일
 의 시책(施策)과 제
 다. 이른바 일시 인
)를 조직하고, 토지
 등 수선을 벌여니
 '내각 결정 146호'로
 을 발표하였다. 서
 따르지. '노동 조합
)'를 조직하
 령에 근거하여, 북한
 동일(八時間勞動日)
 권익(權益)을 옹호한

다'느니 갖은 감언 이설(甘言利說)을 다 늘어
 놓았다. 그러나, 모든 공장·기업소가 휴업 상
 태(休業狀態)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
 은 한낱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았다. [법
 령 골자] ①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 법
 령(노동자·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 참조)을
 그대로 남한에 적용(適用)할 것. ② 이승만 정



북괴는 6.25 때 서울에 들어오자 말자, 노동법
 동원을 하기 위해 노동 법령을 발표하였다.

부와 민족 반역자 소유의 온천(溫泉)·약수(藥
 水)·피서지(避暑地)·유람지(遊覽地)·명승
 지(名勝地) 시설과 건물을 정양소(靜養所) 또
 는 휴양소(休養所)로 사용할 것. [취약점] ①
 8.15 해방 후, 좌익계(左翼系)가 난동을 부릴
 때, 이른바 '전평(全評)'이라는 노동자 조직
 이 있어서 갖은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노동 조합 전국 평의회(全國評議會)가 무슨 짓
 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히 추측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 조직한 '전평'을 믿
 으려 들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②
 노동 법령이 8시간 노동제니, 시간 외 노동에
 대한 1.5 배의 임금 지불(賃金支拂)이니, 연
 간 250 시간 이상 시간 외 노동 금지니 하고 선
 전했지만, 우선 공장·기업소가 대부분 가동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개혁(土地改

革) 등에서 그들이 자행(恣行)한 기만 행위
 (欺騙行爲) 등으로 미루어, 이 법령이 노동자·
 사무원 계급을 저지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및
 반침을 누구나 간파(看破)할 수 있었다.

점거 지역에서의 살인 만행(點據地區
 殺人蠻行): [개황] 북한 괴뢰 집단은 6.25
 남침 전쟁을 도발하고, 그들이 진공한 지역
 서 많은 요인(要人)들을 체포·납북(擄捕·
 拉北)하였거나, 무참하게 살해(殺害)하였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시책이 전국 침투하지
 않는 무고(無辜)한 애국 국민들, 심지어 갖은
 아기까지 저지 멋대로 살해하는 잔인(殘
 虐)의 만행을 가차 없이 자행하였다. '요인 체
 포와 숙청' 북괴 노동당은 괴뢰군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요인 체포(要人逮捕)와 소위 반동
 숙청(反動肅清)을 그들의 주요 시책의 하나로



이렇게 무고한 주민들을 반동 분자로 몰아 탄압
 하였다.

삼았다. 이 사업은 정치 보위부(政治保衛部)
 <정치 보위부 참조>가 중심이 되어, 내무시
 (괴뢰 경찰)와 사회 단체들이 동원되었다. 서
 울의 경우, 과거 우익계(右翼系) 사정을 잘
 아는 자들을 포섭하여, 가무 특수 정보망(街
 頭特殊情報網)을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
 익계 인사들의 가택 수색(家宅搜索)까지 해 가

치 공작대 대원들은 그들의 사명과 임무에 따라, 맹랑(孟浪)한 선전을 일삼았다. 그들이 행한 선전은 ① 6.25 동란은 남한의 북진 통일 정책(北進統一政策)에 의해 도발(挑發)되었고, ② 인민군이 반격해 나온 것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며, ③ 소련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식으로 증진 선전하였다. 선전 요원(宣傳要員)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파견된 자들로서, 김 일



정치 공작대 농들은 어린 노유자들까지 모아 놓고 정치 선전을 일삼았다.

성 대학(金一成大學)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모두 6.25 동란을 일으키면서 차출되어 선전 내용과 요령 등에 대해 단기 강습(短期講習)을 받고 남파되었다. 이들 정치 공작원의 수는 자그마치 5,000 명에서 6,000 명에 달하였으며, 각 면·이(各面里) 단위에까지 파견되었다. 그들은 강연회(講演會)·해설 모임·좌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가소롭게도 6.25 북침선과 인민군의 정의군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심지어 6.25 도발 책임(挑發責任)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체포한 정치인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내무 장관이었던 김 효석(金孝錫)·전 민정 장관(全民政長官)이었던

안 재홍 등 게시를 공갈·협박하여 각본대로 임계 하였던 것이다. 정치 공작대원들은 이른바 인민 위원회 선거·토지 개혁·노동 법령의 선전에도 직접 간여(干與)하였다. 그리고 정치 선전 수단(政治宣傳手段)인 언론·출판·방송 기관(言論·出版·放送機關)들을 정비 이용하였다. 서울 신문사를 빼앗아 '조선 인민보'라는 이름으로(7월 1일자 창간), 노동당 기관지로서 '해방 일보(解放日報)'를 간행함으로써 선전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각도에서도 신문사를 인수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도당 기관지(道黨機關紙)인 '○○도 일보'를 발간(發刊)하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북한의 예술단(藝術團) 공연까지 있었다. 피퇴근 협주단과 피퇴 내무성 협주단 등의 음악·무용·관현악 연주의 등도 몇 차례 있었다. 모두 다 북한 피퇴 정권(北韓傀儡政權)의 정당화를 위한, 그리고 전쟁을 선동하는 내용들이었다. [출판물] 북괴가 남한 지역에 들어와서 간행했거나 주민들에게 강제로 읽힌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 신문 종류=민주조선·로동신문·조선 인민보·해방 일보·농민 신문·무사 신문·민주 청년·조국 전선·소비에트 신문·문화 전선. △ 잡지 종류=인민·태풍·조, 소 전선·조선 여성·내과 공보·조국 보위·어린 동무·활산(만화)·농림 수산·문학·예술·과학 세계. △ 외국 출판물=미오닐 투라우다(소년 신문)·공고한 평화와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볼셰비크(소련 공산당 기관지)·농촌 여성(화보)·청년 볼셰비크(소련 공천 기관지)·로동 여성(화보)·악어(화보)·봉화(화보)·소비에트 동맹 등이다. 이들 출판물들은 주로 당과 행정 기관·사회 단체 등 공공 기관에 배포(配布)되었을 뿐, 일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 [취약점] ① 조 작, 터무니 없는 정을 내게 하였 히 알고 있는 주 의의 군대니, 선전을 함으로써 호과(逆效果)를

정치 노선 (자들은 공산 (段階)에서 당의 었으며, 그것을 게 할 것인가 하 (總方向)을 규정 이라고 말하면서 고 있다.

정치 사상 (據點) : [내용] 실(革命活動研究 研究室) 등 정치 으로 실시하는

정치 사업 (명 전통 교양(革 동(黨改策宣傳 教養) <공산주의 사업이라고 한다 든 사업에 선행(고 있다. [취약 민들에게, 피수 정신을 주입(注 (奴隸化策動)의

각각의 각본대로
 공작대원들은 이른
 새벽·노동 법칙
 (日報)하였다. 그리고
 (인문·출판
 機關)들을 정비 이
 데 있어 '조선 인민
 (창간), 노동자
 (日報)'를 간행한
 것이다. 각도에서
 일부 지역에서 도
 (도 일보)를 발
 행하는 북한의 예
 다. 피뢰군 협주
 등의 음악·무용
 있었다. 모두 다
 (의 정당화를 위
 는 내용들이었다.
 이 들어와서 간행
 된 출판물은 다
 주조선·로동선
 ·농민 신문·주
 인선·소비에트 신
 (류=인민·대중·
 각 공보·조국 보
 ·농림 수산·문학
 출판물=미오넬 주
 평화와 인민 민주
 선 공산당 기관지
 소비에트(소련 공
 ·악어(화보)·봉화
 이다. 이들 출판
 ·사회 단체 등 공
 문, 일반 주민들

이런것으로 사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취약점] ① 조령 모개(朝令暮改)하는 선전 공
 과, 터무니 없는 선전에 주민들을 도리어 역
 경을 내게 하였다. ② 북괴의 남침 도발을 뿐
 이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북침(北侵)이니, 정
 의의 군대니, 최방시켜 주느니 하는 파위의
 선전을 함으로써 모든 선전을 믿지 않게끔 역
 (逆效果)를 내었다.

정치 노선(政治路線) : [내용] 공산주의
 자들은 공산 혁명(共產革命)의 일정한 단계
 (段階)에서 당의 기본 임무(基本任務)가 무
 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
 게 할 것인가 하는 등 당의 영도(領導) 총방향
 (總方向)을 규정한 부정 노선을 정치 노선
 이라고 말하면서 세계 적화(世界赤化)를 꿈꾸
 고 있다.

정치 사상 교양의 거점(政治思想敎養
 據點) : [내용] 소위 김 일성 혁명 활동 연구
 실(革命活動研究室)·당 역사 연구실(黨歷史
 研究室) 등 정치 사상 교양을 집중적(集中的)
 으로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정치 사업(政治事業) : [내용] 소위 혁
 명 전통 교양(革命傳統敎養)·당 정책 선전 선
 동(黨政策宣傳煽動)·공산주의 교양(共產主義
 敎養)〈공산주의 교양 참조〉 등의 사업을 정치
 사업이라고 한다. 북괴는 이 정치 사업을 모
 든 사업에 선행(先行)시키라는 요구를 내세우
 고 있다. [취약점] 정치 사업이란, 북한 주
 인들에게, 괴수 김 일성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주입(注入)시키기 위한 노예화 책동
 (奴隸化策動)의 하나이다.



김 일성 수상화가 정치 사업의 제 1 조건(김
 형직 동상 앞에서 일터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

정치 안전국(政治安全局) : [내용] 군부
 내(軍部內)에서 특무 역할(特務役割)을 하는
 기구로서, 군인의 신원(身元)과 군관 가족들
 의 동태(動態)를 항상 감시(監視)하며, 각종
 범죄자(犯罪者)들을 적발 체포(適發逮捕)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북괴는 이 정치 안전국을
 1969년 정치 안전 보위국(政治安全保衛局)으
 로 개칭(改稱)하였다. <군정치 안전 보위부
 참조>

정치 훈련(政治訓練) → 북괴군의 고유
 훈련

제네바 회담(Geneva會談) : [내용] 19
 54년 4월 26일, 한국전(韓國戰)에 참가 및 관
 련된 19 개국 외상(外相)들이 한국의 평화적
 통일(平和的統一)을 위해, 제네바에서 진행된
 회담을 말한다. 이 제네바 회담에서 변 영태
 (卞榮泰) 한국 수석 대표는 외상들 앞에서,

면서 체포하도록 하였다. 체포한 사람들은 일 단 해당 내무서(內務署)〈내무서 창크〉에 넘겨, 거기에서 심사(審査)를 하지 한 다음에, 전원(全員) 유치장, 또는 중앙청 지하실에 수감(收監)하였다. 9월 20일 경이 되자, 북괴당은 피 퇴근의 패주(敗走)에 대비, 수감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措置)를 하달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면, 수감된 요인들을 북한 지역으로 후송(後送)하거나 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적당히 처단(處斷)하라는 것이었다. 이 지시에 의하여 각 지방에서는 형무소(刑務所) 내에서, 아니면 끌고 나가 산중(山中)에서 대부분을 집단 학살(集團殺)하였다.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요인(各界要人)들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매우 교활(狡猾)한 방법을 썼다. 1차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집에 없으면 가족들을 끌어다가 공갈 위협(恐喝威脅)하여 은신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체포(逮捕)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들은 회유책(懷柔策)을 썼다. 즉, 체포된 거물급 인사(巨物級人士)들로 하여금, 강제로 신문·방송을 통해 동료 요인들의 자수를 권유(勸誘)하는 방법, 신문에 자신의 자수(自首)를 공고하는 방법 등을 썼던 것이다. [공고문의 예] 북괴가 서울에 들어와서 간행(刊行)한 '조선 인민보(朝鮮人民報)'에 게재된 공고문(公告文), "소위 국회 의원이란 이름으로 갖은 착취와 학살을 감행해 오던 매국 도당(賣國徒黨)의 두목들은 지금 자수하여 인민 공화국(人民共和國) 정부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달, 혹은 서울 시내에 피신(避身)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자수(自首)하여 자기의 죄과를 청산하여야 것이다 할. 아직 자수하지 않은 자

들의 연락 사무소는 서울시 다동 ○○ 그림로 서, 연락 내왕(來往)에 대한 신원은 보장되어 있다. 연락 시간은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처 본인이 못 올 경



보라! 이 공산당의 살인 만행을! 북괴 도당들은 6.25 남침 때, 남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虐殺)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에는 대리인(代理人)이 먼저 연락해도 무방(無妨)하다. [경위] 가두 수색·가택 수색 내지 회유책(懷柔策) 등 같은 방법으로 체포(逮捕)한 요인들을 북괴는 대부분 북한 지역으로 남북(南北)하여 갔다. 1차로 7월 하순경, 평양(平壤)의 건설상을 보며 준다는 구실 하에 끌고 갔다. 이때, 북으로 끌려 간 요인들은 주로 경제 인사(政界人士)들로서 협상파(協商派)·자진 출두자(自進出頭者)·국회 무락치 사건 관련자 등 이용 가치(利用價値)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다. 2차는 8월 중순경, 이때는 이른바 반동 관료(反動官僚)·반동 분자(反動分子)로 낙인 찍힌 요인들로서, 각 내무서(북괴 경찰) 유치장·중앙청 지하실에 구금(拘禁)했던 인사들이다. 이 인사들은 모두 도보(徒步)로 끌려 갔는데, 따라 오지 못하는 인사들은 도중에서 모조리 총살(銃殺)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남치된 인사들 중 저명(著名)한 인사

들을 소개하면, 조 스양(趙素昂) (金奎植)·원 시· 조 판구(趙判九)로 송 호성(宋洪成)·방 응도(方應道) (李光深)·다· 김 건성(金健成) 백 인제(白麟濟) (金慶鎧) 등이 경기도·강원도 되었지만, 전라 지리산(智異山 地帶)에 강제로 하였다. 이른바 증 제2 전선 형 하였다. 북괴 지 '인민군은 (虛偽宣傳)의 익점) ① 요인 가족들은 불 ② 남북·학 국민의 분노를 않을 만큼 공방에서 공비. 아 남은 사탄 비둘까지 북 한 태도(월 크)에 크 은 자수자들

점거 지 명운동) 동란을 도